



이를 위해서 기계제작을 맡은 덴마크의 Sanovo 사에서는 제품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 미생물 과학연구소에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

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계란의 소비위축으로 물량이 채화되거나 가격이 하락될 때 적자수출을 하지 않고 냉장저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난각분은 단백질의 성분이 4.5%나 되어 사료회사에서의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나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채란양제업체에 혁명을 일으킬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

계란의 위생적인 처리와 수급조절, 새로운 수요의 개발 등을 위한 채란양제업체의 숙원사업인 난분공장 건립이 (株)世經農産(대표李暲守)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병점부근의 부지 4천 8백여평에 전평 6백평(본건물 500평, 부속건물 100평) 규모에 1일(8시간 기준) 28만개 처리능력으로 연간 10억 8백만 개(월 8천 4백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계란처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기계제작에 들어가 오는 5월 초 부터는 본격적인 건물시공으로 8월중에 공장 건립을 마치면 10월경에는 외국으로부터 기계가 도착해 설치공정을 2개월 정도 잡는다면 오는 12월 중에는 시험 제품을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 계란 가공공장이

### 금년말부터 시험제품

시중에 있다. 또 전문기술자의 양성을 위해 세경농산의 국내 기술자가 기술훈련차 오는 7월중에 덴마크로 기술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동사는 금년말 시운전으로 신제품을 내게 되면 내년초 1월부터는 양산체제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난가공제품을 출하하게 될 것이다.

난가공공장에서는 냉동란, 전난분, 난황분, 난백분 등을 생산해 제과, 제빵업체의 납품은 물론 계란의 소비촉

은 이경수사장은 현재 만28세의 젊은 실업인으로 국내



△ 계란의 질을 검사한다

에서 고등학교를 마친후 미국에 이주하여 뉴욕에서 채소 등 청과물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패기에 넘치는 청년 실업가로 다시 국내에 들어와 현재 고대 경영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미국에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전재산을 난가공사에 투자하여 국내양계업계는 물론 식품업계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자 기계비 134만불(약 10억원)과 부대시설 1억 3천만원, 국내 기계 시설비 1억 3천만원

내 양계업자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에 손을 대었다 한다.

사업을 계획하며 조사를 하는 도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농수산부 가공이용과의 소개로 건대 한석현교수 등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1차로 난분생산과 액란처리 등을 계획하며 2차로는 가공식품을 개발해 선진 외국에서 인기가 높은 계란우유, 음료수 등의 제품을 생산 계란의 소비신장을 유도



△ 자동 계란 파란기

## 건립된다

### 생산예정

(세경농산 이경수 사장)



등 총 투자규모 23억원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난가공공장 건립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난 81년도에 국내일간 신문을 통해 계란이 남아 돈다는 기사를 읽고 국내에 남아도는 계란을 미국으로 모두 수출하고자 귀국해서 보니 계란은 한개도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한국에는 없는 사업인 계란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 하던중 계란분공장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후 착상을 해 국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처리와 보존기간, 영양적인 특성으로 군의 비상식량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많아 사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광순 전무(전 건대교수)는 양계산업을 위한 정책적인 공익산업으로서의 난가공공장 건립을 위해 농수산부의 축산진흥기금 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국

내 양계인들도 관심을 높여 능력있는 업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난가공공장이 건립되어 계란가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계란유통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1개의 난중이 아닌 총무계단위로 거래가 성립되고 난황의 크기, 난황의 질 등 계란의 질적인 문제가 중요시될 것이며 난황과 난백의 질에 따라 사료공업은 물론 영양학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2~3년 후 본체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신장이 되어 2차 가공품의 제품개발로 계란의 소비신장과 부대산업이 발전해 전양계인이 염원하는 안정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난가공공장을 건립하는 주식회사 세경농산의 연락처는 서울시 중구 장교동 42번지 (대창빌딩 6층) ☎(754) 8155~6이다.